

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

독도재단-대구대, 참가팀 모집

본선 진출...독도 탐방 기회 제공

권호경 기자 ohra01@naver.com | 입력 : 2022년 06월 09일(목) 17:00



↑↑ 2021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대회 최우수상 팀의 공연

[경상매일신문=권호경기자]경상북도 출연기관인 (재)독도재단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‘독도야, 우리 함께 놀래?’를 주제로 한 ‘2022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대회’에 참가할 외국인 유학생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. 대상은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 연수생, 학부생,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. 팀별로 참가 신청해야 하며, 한 팀당 3~4명으로 구성하면 된다.

본선 대회는 8월 16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본관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독도를 주제로 콩트, 연극, 뮤지컬, 노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면 된다. 발표 시간은 10분 내외로 주제와 내용, 발음과 발표력 등을 평가하여 총 6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. 또한 본선 참가팀 전원에게는 대회 다음 날인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및 독도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.

유수호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“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표현하는 독도는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된다”며 “유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모아 향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려나

가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”고 말했다.

자세한 내용은 독도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dokdo.or.kr/>)와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홈페이지(<http://www.multi-culture.co.kr/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url : http://www.ksmnews.co.kr/default/index_view_page.php?part_idx=170&idx=382153

Copyrights ©경상매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